

복지전담인력 늘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와대, 읍면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발표

청와대가 지난 11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개편하는 내용의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했다.

2014년 생활고로 고생하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스스로 복숨을 끊은 '세모녀 사건'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복지상담전문관의 원스톱 상담, 주민참여 지원사업, 마을사업 전문가와 동네 문제 해결 방문 간호사와 방문 복지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오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민들의 삶의 상태와 환경 조건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국가 주도의 일방적 정책으로는 역신이 곤란하다"면서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해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주요 추진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추진 방향은 ▲위계적 행정에서 생활가반 플랫폼 행정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읍면동 주민센터를



교도소세트장에서 추억 남기기 익산시는 전국 최초의 교도소세트장인 상당면 교도소세트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진은 상당면 교도소세트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죄수·교도관 의복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일선 행정단위를 혁신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독려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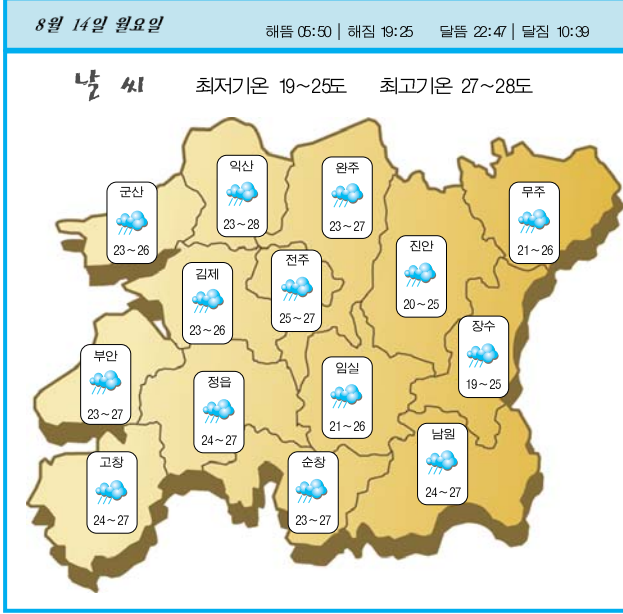
청와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관련 정책을 추

진할 방침이다. 예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된다.

하 수석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산 계획에 대해서는 "읍면동 복지전담인력을 늘려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선호도가

높았던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면서 "동사무소의 공간을 주민 모임 장소나 법률 상담실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역 밀착 서비스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민참여 전주에너지독립운동 추진

전주시는 기후변화의 위기와 에너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시민참여 전주에너지독립운동을 추진한다.

전주에너지독립운동은 광복절인 1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 에너지독립선언과 2단계 에너지독립운동, 3단계 에너지광복으로 이어지는 이번 전주에너지독립운동은 전주시 등 공공 부문 주도의 에너지 독립이 아닌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시작된다.

시는 이번 에너지독립운동의 최종 목표를 에너지절약 활동을 넘어 에너지 생산을 통한 진정한 에너지광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참여자들에게 에너지 생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소개하고, 직접 설치가 어려운 참여자들에게는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및 관련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주도로 시작되는 전주에너지독립운동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전주민의 에너지독립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생산에 참여하는 깨어있는 에너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고사위기' 동네서점, 전주서 활로 찾는다

전주시, 내달 1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서 지역서점 아카데미 운영

독서인구가 감소하고 대형 인터넷서점에 밀리면서 고사위기에 처한 동네서점들이 활로를 찾기 위해 전주를 찾는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하고 시립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는 등 동네서점 살리기에 힘써왔다.

시는 전국 지역서점 종사자와 서점 예비창업자들이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서점 아카데미'에 참가해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서점조합회 주관으로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전국 지역서점 관계자들이 모여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행사로, 올해 행사는 서점과 북큐레이션, 서점 독서문화 콘텐츠 기획과 운영, 서점, 고객과 대화하자, 독서인담의 저자 박근호와 뮤지션 노르웨이 웨이슬이 함께하는 북콘서트 등 다양한 주제 특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전국 서점종사자와 예비창업자들 서점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점의 문화사랑방 역할에 대한 방향제시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는다.

이를 통해, 인터넷서점과 대형서점에 밀려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서점들이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 독서대전을 찾는 시민들에게 지역서점이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휴식하는 공간으로 마을공동체의 사랑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전주사업완산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독서대전 기간 중에는 지역서점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7개 동네서점을 탐방하는 동네방네 구석구석으로 떠나는 책방여행도 운영된다"며 "이처럼 다양한 서점관련 행사를 통해 지역서점이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책과 독서문화축제로서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주경기전을 비롯한 한옥마을에서 개최된다.

/인재용기자

전주시실공단, 청소년 초경 공원시설 체험 행사 실시

전주시실공단은 8일과 10일 2회에 걸쳐 중산지역아동센터와 착한 빗물 소속 어린이 등 40여명을 초청해 오리배 타기, 알뽕오르기, 조랑말 타기 등 릴레이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한 걸음 더 시민 속으로 주재로 공단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진행한 체험행사는 3년차를 맞이해 봄(2월), 여름방학(8월) 등 2회로 횟수를 늘리고 초청대상도 다문화가정으로 확대했다.

참석한 어린이들은 덕진공원에서 오리배를 타고, 전주승마장에서 말에게 먹이를 주고 조랑말을 타며 신기해 했고, 완산체육공원 인공암벽을 오르면서 짜릿한 쾌감 속에 더위를 잊기도 하였다.

전성환 이사장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한 걸음 더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공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재용기자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배우자 나라 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일 전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부부 7쌍을 대상으로 '배우자 나라 이해하기 및 베트남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부부행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베트남 다문화 강사를 초빙해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차이, 베트남의 부부관 등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차이,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며 평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의 유익한 강연으로 진행됐다.

월남쌈 등 베트남 음식을 함께 만드는 배우자 나라 음식체험을 통해 평소 식사준비를 많이 돕지 못했던 남편들도 직접 음식 준비를 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신랑과 함께 강의도 듣고 베트남의 음식도 만들며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재용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